

제목:

6-8-27-이태영

알라딘은 옛날의 디즈니 만화로 만들었지만 다시 실사판으로 만들었졌다.

영화 알라딘에서 영화 감상문을 쓸 인물은 자파이다.

자파는 알라딘에서 가장 나쁜 인물이다. 자파의 성격은 까칠하고 술탄이 될거라는 욕망을가지고있고 알라딘을 죽일만큼 램프의 대한 욕망도있고 욕심이 많아 알라딘을 죽이고 램프의 세주인이 되었었다

욕망이 있다는이유는 알라딘이 “너는 지니보다 강하지 않아” 라는 말을듣자 자파는지니한테 “나를 우주에서 가장 강한 존재 로 만들어줘 너도다 더” 그걸듣고 지니는 자파를 우주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됐다. 하지만 자파의 욕망 때문에 요술 램프에 갇치고 말았다.나 라면 그말을무시하고 지니 만큼은 아니여도 나는 거기서 멈출꺼지 자파는 역시 욕심이 많은것같다 나도 자파 처럼 욕심을 냈다가 혼란적이있다. 또 욕심이많다는이유는 술탄을 마법으로 말을 조종해 이웃 마을 아그라바를 공격하려는 모습을 봐 그 장면에서 욕심을 보여줬다.나도 그런 경험을했다.

영화를보면서 전체적으로 쫘 노래가 신나고 배경이 화려하고 처음 봤을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점점 재밌어지고 신난다. 인물들이 노래를 하는게 좋았고 생각한다.마지막에 자스민이 “하킴” 이라고 말하는게 생각나고 하킴이 자스민의 말을 듣는 장면도 생각한다.알라딘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서 하늘을 나라다니면서 노래부르는 장면과 알라딘이 램프를 비비는 장면이 생각났고 알라딘이 브레이크 춤을 추는것이 생각이난다.그리고 술탄의 아쉬웠던점은 술탄이 마법에 너무 쉽게 당하는게 쫘 아쉽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물들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도있다.알라딘